

〈主 題〉

통신사업의 국제환경 변화와 경쟁력 강화방안

이 교 용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 차 례 □

I. 머릿말

II. 통신사업의 국제환경 변화

III.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IV. 맺는말

I. 머릿말

지금 세계는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바야흐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이 될 정보통신분야에 불어오고 있는 자유화·개방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개방논의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다. 즉 교환기 등의 첨단 통신장비는 일부 선진국에서만 생산돼 기술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수입해다 쓸 수밖에 없었고, 통신서비스시장 또한 전통적으로 국가가 직접 경영하거나 특정 공기업에 의한 독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정보통신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가속화되고 급기야 금년 2월에 WTO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유·무선통신은 물론, 위성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통신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의 이면에는 산업화의 성공으로 한세기 동안 누리던 부(富)를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하려면 정보통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따라서 세계 정보통신시장 선점을 위한 선진국들의 경쟁은 경제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통신분야 국제환경 변화의 주요내용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경쟁력강화 노력이 요즈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의 성공을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는 중요성을 재음미하면서, 21세기 국가선진화전략으로써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통신사업의 국제환경 변화

1.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기본통신협상이 3년여의 논의 끝에 금년 2월에 타결되었다. 동 협상에는 시내·시의·국제전화와 같은 유선전화는 물론 이동전화·무선호출·PCS와 같은 무선통신 등 거의 모든 기본통신서비스의 개방이 논의되었으며, 전세계 통신시장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69개국이 자국의 양허계획을 제출하였다.

각국이 제출한 양허계획서는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부속서로 첨부되며, 각국은 자국의 양허계획에 따라 금년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 한 후 '98년부터 자유화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98년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통신사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고, 이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한 국내·외 사업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WTO 체제하에서는 선진각국이 GATT 체제하에서 개도국들에게 허용해 온 자국 산업 보호시책 등의 예외를 인정치 않고 모든 분야에서 완전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각국 정부의 상용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지, 국산화정책 폐지 등 기존 산업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통신영역의 확대

컴퓨터, 광전송, 무선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과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기존 서비스는 발전·융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신규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시장이 붕괴되고 신규서비스 시장의 급부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기술개발경쟁에 따른 기술주도(Technology Push)와 이용자의 서비스 기대증대에 따른 수요견인(Demand Pull)의 상호작용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주기와 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Intel, Netscape, Microsoft 등과 같은 창의적인 기업이 산업발전을 주도해 가게 되었다.

또한 정보, 통신, 방송의 융합, 멀티미디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광통신·디지털기술의 발전에 의한 대용량화·초고속화 등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시장개방과 경쟁도입의 확대로 시장의 세계화가 급속히진전되고 있다.

3. 전략적 제휴와 세계화의 급진전

세계각국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네트

워 구축을 위한 세계 주요 통신사업자들간의 전략적 제휴가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를 무대로 한 기업간 제휴·합병이 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BT, MCI, NTT 등이 자본제휴를 통해 설립한 Concert, AT&T, KDD, Singapore Telecom 등이 설립한 World Partners 등이 전자의 대표적 사례이고, 후자의 사례로 Silicon Graphics는 Time Warner와 TV산업에서 제휴한 바 있고, AT&T는 McCaw사를 인수하고 Direct TV에 투자하였는가 하면, 미국 Apple사는 일본의 Canon, Sharp와 제휴하였으며, 멀티미디어 PC분야에서는 Microsoft사를 중심으로 AT&T, NEC, Fujitsu 등이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결국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지리적인 niche market의 개념이 붕괴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우수한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4. Internet의 부상과 생활화

소비자의 정보욕구 증대와 정보기술 발전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정보통신망인 Internet을 이용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Internet 사용자 수는 연평균 약 90%에 달하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여 '94.1월 2천만 명에 불과하던 지구촌의 Netizen이 '97. 1월 1억6천만 명에 달해 3년여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 하반기에는 사용자 수가 2억3천여만명에 달해 지구촌에서 30명중 1명은 Internet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 Internet이 지구촌 정보화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Internet은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의 장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화전략의 전진기지로 이용되고 있다. Internet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Internet의 가상공간이 새로운 전자상권을 형성해 시공을 초월한 전지구적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Internet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현대인이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Internet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 준거집단의 패러다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5. 정보통신정책 기조의 변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통신 정책환경의 혁신적인 변화에 따라 각국은 기술개발과 그 기술의 보호 등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환경 조성위주의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은 정보통신시장의 과감한 개방과 자유화를 통하여 민간의 활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이 과정에서 배양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규제완화와 공정경쟁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민간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지역전화, 장거리전화, CATV 회사간 진입장벽을 해체하여 통신과 방송매체를 이용한 Contents 산업의 우위확보를 목표로 '96.2월 통신법을 개정하였고, 일본은 NTT 분할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신사업 구조개편을 논의중에 있으며, EU는 '98년 통신서비스의 전면 경쟁체제 구축과 이에 부합되는 규제장치의 제도화를 추진중에 있다.

6.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의 범세계적 추진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 진전과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이 국제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각국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ECD, APEC, APT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정보통신기반(NII) 구축과 범세계 정보통신기반(GII) 구축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일본은 2010년까지 모든 가정을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내용의 신사회간접자본을, EU는 범유럽네트워크(TEN)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계획은 네트워크 구축에 민간의 참여

를 촉진함으로써 투자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고 자국산업의 국제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Ⅲ.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방안

통신환경의 글로벌화와 개방화로 요약되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각국 정부에 새로운 정책방향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신·방송 융합 대비

앞으로 정부는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 통신·방송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통신·방송간 진입장벽 완화, 규제기관·법률의 일원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Contents,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 기술주도(technology push)를 통해 통신·방송 융합을 촉진시키는 한편, 수요요인(demand pull)을 통해 뉴미디어 서비스의 보급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선 사업허가, 후 무선국허가」방식을 「사업허가절차와 무선국 허가절차의 일원화」 또는 「선 주파수허가, 후 사업허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통신·방송사업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2. 전략적 정보통신기술 개발 추진

선진국의 급속한 기술혁신 추세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 산·학·연·관 간의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비동기식 초고속교환기(ATM), 차세대이동통신(FPLMTS), 초고속병렬컴퓨터 및 디지털 방송기기 개발 등을 주요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이를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6,100억원의 재원을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00년까지 총 1조 9,600억원의 연구개발자금 지원계획을 이미 수립하였다.

3.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지원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미래가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중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금년부터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관련 전문대학·산업계 고교를 선정하여 실습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의 훈련시설을 이용한 자체적 인력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4. 중소정보통신기업 지원·육성

중소정보통신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다양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의 분산과 기술담보제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 캐피탈 및 스톡 옵션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기업가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및 인력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확립

정부는 지난 수년간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종래 한국통신 위주의 유선전화서비스에 중점을 두던 통신정책에서 벗어나, 기본통신분야에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무선과 부가통신분야의 경쟁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96년에 27개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고, 금년에도 제2 시내전화사업자를 포함하여 신규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여 통신분야에 전면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음성재판매, 국제콜백서비스와 인터넷전화와 같은 틈새형 서비스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와 기술개발 추세, 선진국의 정책동향 등을 감안하여 조만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현재의 사전공고방식을

폐지하고 통신사업 진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며,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 지분제한, 음성재판매사업 허용근거,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관련법령의 개정과 정책수립을 추진중에 있다.

6. 규제완화 및 공정경쟁 보장장치 강화

통신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독점적 시장구조하에서 불가피하였던 정부규제는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어야 하는 바, 정부는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통신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통신위원회에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여 통신위원회를 분쟁해결 및 공정경쟁확보를 위한 준사법적 기능을 갖는 규제기관으로 전문화해 나갈 계획이다.

7. 한국통신의 경영혁신

한국통신이 우리나라의 주도적 통신사업자로서 세계일류의 통신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환경에 맞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전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국통신의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배제 또는 정부지분 축소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회사의 독립경영도 촉진할 것이다.

8.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등 국내업체간 전략적 제휴나 공정경쟁을 도모하도록 이미 구성·운영중인「해외진출지원협의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중소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개도국, 틈새시장위주에서 선진국, 성장시장으로 해외진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성장잠재력, 주변국가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전략거점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이러한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

여 EDCF자금 및 수출보험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간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APII 협력센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APII협력사업에 APEC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첨단기술협력 및 해외정보수집, 통상현안에의 조기대처 등을 위해 주요 해외공관예의 주재관 파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교 용

IV. 맺는말

앞으로 세계 정보통신분야는 서비스와 장비시장을 막론하고「소수의 수출국」과「다수의 수입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정보통신산업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성장과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첨단산업분야인데,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각 분야의 정보화와 함께「정보통신의 산업화」를 아울러 추진하여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자유화와 개방화라는 정보통신분야의 환경변화는 우리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이용하기에 따라서 커다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부, 민간업계, 학계 등 모든 부문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통합된 노력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야 한다」는 역사로부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보화 능력을 총체적으로 배양함으로써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이 창출되는 정보 관련산업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보강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953년 1월 17일생
- 〈학 력〉
- 1975년 2월 :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1988년 7월 : 프랑스 파리국제행정대학원 졸업(공기업 경영학 석사)
- 1989년 8월 : 프랑스 파리 9대학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관리학 박사과정 수료
- 프랑스 체신행정대학원 수료
- 1995년 7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40기)수료
- 1996년 12월 : 국방대학원 안보과정(16기) 졸업

- 〈경 력〉
- 1983년 1월~85년 3월 : 체신부 차관비서관
- 1985년 3월~86년 4월 : 천안우체국장
- 1990년 3월~91년 7월 : 체신부 국제우편과장
- 1991년 7월~93년 6월 : 체신부 통신정책실 통신협력과장
- 1993년 7월~93년 9월 : 체신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 1993년 9월~94년11월 : 체신부 UPU서울총회준비사무국장
- 1994년11월~95년 6월 : 통신개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95년 6월~95년12월 : 충청체신청장
- 1997년 1월~현재 :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